

2014. 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4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4.10.28	대전MBC 대회의실	7/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유덕순, 김형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6	8	-	-	15	-	15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5	1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9월
교양	“..습니다” 2중진행형 발음 주의	교육 통해 2중진행형 언어습관 교정	9월
기타	대전MBC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프로그램 소제목(내용)표기 요망	홈페이지 다시보기 프로그램 소제목 표기	9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대전의 대표적 축제에 대한 이슈 다루어지길	시사 토론프로그램에서 대전의 축제 관련 이슈를 다룸.	9월
교양	지방재정 문제점 지속적 취재 요망	시사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룸	9월
교양	지방재정 위기 심도 있게 계속 다루어지길	시사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룸	9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 불산의 문제(환경문제) 잘 지적함. 계속 환경감시기능 유지	시사프로그램에 환경감시기능 강화	9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전국이 보인다)에서 생동감 있는 현장모습 시청자 반응 좋아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 눈높이 맞춰 제작	9월
교양	의학정보 프로그램 시청자와 가깝게	의학정보 프로그램 유익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으로 제작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장해촉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10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104회를 맞는 허참의 토크 앤 조이(10월 18일)에서는 가을 햇살이 가득한 캠핑장에서 이색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방송의 주인공은 캠핑족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1호 아웃도어 플래너인 한형석씨이다. 캠핑전문가 한형석씨와의 토크를 통해 요즘같이 쾌적하고 선선한 가을에 초보 캠핑가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장소를 고르는 방법, 갖추어야 할 장비, 가을철 캠핑하기 좋은 장소와 같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어 시청하는 캠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요리를 직접 자리에서 보여주며 설명하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으며, 미각을 자극하였다. 또한 사회자들은 캠핑을 사랑하는 출연자의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전해지도록 편안한 진행을 해주었다. 이번 주 방송은 야외 진행을 통해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답답한 실내 스튜디오 진행이 아닌 야외 진행은 본 방송의 큰 특징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오덕성).</p>	<p>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스튜디오 제작을 기본으로 하지만, 계기성 특징이나 초대 인물에 따라 야외나 외부에서 녹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캠핑플래너 한형석씨의 경우 아이템 자체가 캠핑장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하기에 계룡산 캠핑장에서 야외녹화를 진행하여 제작되었다.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의 정성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하겠다</p>	○		
교양	<p>이번 TV특강에서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10월21일). 강의에 앞서 진행자는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오늘의 강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등 진행 솜씨가 돋보였다. 또한 방송이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자의 마무리 진행 역시 매끄럽게 방송을 끝마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강의자는 트로트 전문가수로 나향18세와 소양강 처녀 등을 부른 가수 한서경씨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복에 관한 주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주부나 여자의 인생에 대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 시청자 층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특히 강의자가 노래를 함께 하거나, 방청객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강</p>	<p>TV특강의 강사선정은 항상 제작진의 고민이나 의외의 강사가 예상외의 반향을 이끌기도 한다. 한서경씨는 가볍게 보이는 트로트 가수이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솔직한 이야기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p>	○		

	<p>의를 진행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웠으며, 많은 공감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교양	<p>이번 주 '시사플러스'(10월24일)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령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와 허허벌판 위에 세워진 KTX 공주역을 주제로 방송되었다.</p> <p>현재 보령시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본 방송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둘러싼 각 단체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객관성 있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타 지역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사례의 취재를 통해 실제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운영 실태를 확인해 주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민들이 이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다만 주민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 없이 지역 계획을 추진한 지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깊게 다루어 졌다면 더욱 의미 있는 방송이 되었을 것이다.</p> <p>두 번째는 호남 고속철 KTX 공주역 준공을 앞두고 접근성이 떨어진 역 위치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었다. 본 주제에 대해서는 대략 5분간 방송되었지만, 감각적인 영상과 시민 및 전문가의 인터뷰, 명료한 내용 정리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는 기존의 시사플러스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로서 짧은 시간동안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오덕성).</p>	<p>시사플러스는 객관성과 국민의 눈높이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 프로그램이다. 시사 프로그램이 빠지기 쉬운 편향성과 극단적 시각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추진되는 마권장외발매소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과 발매소 주변지역 슬럼화 및 주민 악영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대전을 비롯한 선 지정지역의 문제와 함께 객관적 관점에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양쪽의 의견을 함께 담았다.</p> <p>KTX 공주역사 문제도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눈이 되어 탐사저널리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겠다.</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개악인가?”(10.17)를 타이틀로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루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도에 도입되어, 1995년, 2009년, 2010년도 세 차례 개혁한바 있음에도 연금지급을 위한 누적 적자액이 18조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연금 기금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때에 대전MBC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개혁안의 배경과 퇴직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이었고, 시기적으로도 시의적절 하였고 내용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시각으로 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p>	<p>2014년 10월말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무원 연금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우리지역의 주민과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화두로 제작되었다. 양편 의견에 대한 균형된 제시를 기본 목표로 삼았기에 양쪽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p>			

	<p>①1960- 1990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산업화 시대에서 공무원의 봉급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쌀 한가마에 해당하는 낮은 월급에서도 매월 7%정도의 연금을 30년간 꼬박 꼬박 공제한 연금기금을 과거정부에서 기금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차용하여 쓰고 반환치 않고 있는 기금도 24조 원대에 이르고 있고, 정부의 부실한 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이 공무원들이 덜 내고 더 많이 받고 있어 연금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설명하고 있는 모순이 있고</p> <p>②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급받고 있는 37만 명 중 퇴직자의 0.6%에 불과한 월 400 만원이상의 극소수 고액수급자와 1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수급자와 단순 비교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80%는 6급 이하의 하위직이며 개혁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2006년도에 임용된 공무원의 공제될 기여금은 32%가 늘어나는 반면 수령할 연금은 현재의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될 이 개혁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후」의 잘못된 개혁안이라는 공무원의 반발을 외면하고 있고</p> <p>③영국의 공무원연금개혁사례와 같이 현직 공무원, 퇴직공무원, 다양한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금개혁위원회」에서 5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외국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개혁안을 발표하지 3개월 만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방법이 졸속행정 스타일 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악하다(한찬희).</p>			
<p>보도</p>	<p>시사광장(지자체, 재정난 어떻게 풀 것인가?10월5일)에서는 대전광역시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 한현택 동구청장, 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 혁신자치포럼 김홍섭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하락원인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날 시사광장에서 토론 내용은 전월 시사플러스(9월 5일)에서 다루었던 ‘바닥난 재정, 위기의 자치구’ 편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지방재정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서의 지방재정 위기와 원인,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한다.</p>	<p>시사토론의 주제에 따라선 상당한 수준의 전문용어나 개념의 등장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가급적 쉽게 풀어 설명하도록 하거나 도표 또는 자막을 활용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p>	<p>○</p>	

	<p>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난의 원인으로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재정 구조와 최근 들어 지자체 재정 압박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한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을 들며,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행 세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분권과 자율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방송편은 지역민들에게 지방재정의 위기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에 대해 관심을 이끌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듣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낯선 용어 및 개념들이 많아 도표나 자막을 활용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장백기).</p>			
<p>교양</p>	<p>그동안 야심차게 준비 해 온 창사 50주년 특집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지난 9월26일 대전MBC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0월22일까지 이어졌던 ‘피카소와 천재 화가들’ 또한 지역 전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등 여러 문화 행사들이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부터는 지난1년 간 제작해온 특집 프로그램들이 12월 까지 시청자들을 찾아 가게 된다. 예년과 달리 다양한 장르에 특집 제작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 놀람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에 기대감 또한 크다. 대전MBC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 특별 기획 드라마 ‘낯은 기억의 잔해’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 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 외에 다큐멘터리 ‘햇살이의 꿈’, 4부작 ‘충청’, ‘백제 미, 그 영원의 생명력’등 미처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창사50주년 특집 프로그램 들이 오는 11월과12월에 집중돼 있다. 앞으로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특집 프로그램 들이 시청자 들을 찾아 갈 기회가 있겠는 가? 너무나 소중한 특집 프로그램 들이 이렇게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자칫 그들 만 의 잔치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도 든다. 본 방송에 앞서 특집 프로그램 예고 PR이 제작돼 시청자들 에게 사전 고지 될 텐데 집중 되지 않도록 예고 PR 일정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시점 인 듯싶다. 예고편 하나가 천만 관객을 이끌어 내는 시대가 아닌가(김학선)</p>	<p>계속되는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 및 PR 송출에 보다더 노력하겠다. 의미 있는 창사50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겠다.</p>	<p>○</p>	
<p>교양</p>	<p>외국어&lt;다른 나라 말&gt;가 한국어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말처럼 쓰이는 말을 외래어라고 하는데 때론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을</p>	<p>제작진과 진행자에게 외래어 사용 대신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진행자에게 더욱 우리 말 사용 강</p>	<p>○</p>	

	<p>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어로 바꾸어 쓸 수 없는 말을 외래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외국어로 가르친다고 한다. 외래어도 될 수 있으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사용 하려고 하지만 대체 할 수 없는 단어 이거나 관습상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외래어를 사용 하고 있는 실정 이다. 뉴스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용어들 중에 외래어라고도 할 수 없는 외국어는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방송 현장에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 예로, 요즘 자주 나오는 'TFT 출범', 'Task Force Team'.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추진 하기위해 임시로 모인 집단, 또 그 임무가 완수 되면 곧바로 해체되는 집단, 임시특별조직) Task force 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 특별전문위원회, 대책위원회, 특별전담팀으로 나온다. 그러데 방송 현장에서는 '테스크 포스 팀' 출범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다. '테스크 포스' 출범으로 표기해야 하지 않을까?</p> <p>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외국어. Agenda&lt;의제&gt;, Governance&lt;지배구조&gt;, Portfolio&lt;자료수집철&gt;로 방송 진행자가 바꾸어 줘야 하겠다. 방송언어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말 이어야 한다(김학선).</p>	<p>조를 주문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시 각별히 유념하겠다.</p>			
<p>교양</p>	<p>테마기행 길(10월7일)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기차내 동승취재를 통해 러시아 일상을 소개하였다. 경유지에 대한 소개를 자료화면으로 보충하여 방송했다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p> <p>최종 도착지인 모스크바에서 보행자의 거리인 아르바트 거리를 소개한 것은 "길"이라는 프로그램 내용과 맞는 선택이었다. 마지막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직접 유라시아와 연결을 소망하는 탐방단의 바람으로 마무리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김명수).</p>	<p>테마기행 '길'은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된 테마기행 '길'은 광주MBC에서 제작했다. '길'이 국내 제작 패턴에서 가끔 해외제작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다. 타이틀에 걸맞게 '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있게 제작되었다고 본다.</p>	○		
<p>보도</p>	<p>창사 50주년 특별대토론회를 흥미있게 시청하였다. 1, 2부로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위상을 짚었는데 패널 구성도 좋았고 프로그램 도입부에 자료영상을 곁들여 구성면에서도 짜임새가 있었다. 덧붙여 현재 제작하고 있는 "시사광장"에도 시청자들에게 주제를 각인시켜주기 위해 영상자료를 도입해주면 좋겠다(김명수).</p>	<p>도입부에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나 간단한 주제설명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p>		○	

<p>보도</p>	<p>보도국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햇살이의 꿈”을 재미있게 시청하였다.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구성이 잘 되었고 프랑스 현지취재를 통해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로드스쿨에 참가한 보호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교화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는 듯하다. 프로그램 예고 PR이나 기타 홍보 방법이 더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성정모).</p>	<p>“햇살이의 꿈”은 의미 있는 다큐 프로그램인데 좋은 평을 해주어 감사하다. 보도국에서 제작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TV를 통한 PR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한 PR과 지역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PR을 하고 있다.</p>	<p>○</p>	
<p>보도</p>	<p>뉴스데스크 주말 판을 집중 모니터하였다. 뉴스편성 패턴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된다. 10월 매주 토요일 탐 뉴스로 소개된 아이TEM을 보면 “지역축제 절정, 청명한 가을하늘 축제 풍성, 가을 단풍 절정...” 등이다. 연성화 되어 있다. 시청자들이 판단해 볼 때 주말에는 이슈화되는 사건들이 없나보다고 판단할 것 같다. 시청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아이TEM을 탐으로 올려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시청률 추이를 볼 때 연성화된 뉴스로 시청률이 감소할 것 같다. 뉴스를 전달할 때 뉴스 내용이 다분히 시적인 것도 있다. 예를들면 “청명한 하늘 연 날리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꽃 내음이.... ” 주관성이 강한 멘트로 뉴스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뉴스기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송인덕).</p>	<p>한정된 인력으로 주말, 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스케치나 사건사고 이외의 다른 제작물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지적대로 주말 뉴스의 연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있다. 평일 제작물을 활용해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고, 의제 설정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 뉴스 연성화에 따른 시청률 하락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p>	<p>○</p>	
<p>교양</p>	<p>차 안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주 듣는다. “즐거운 오후 2시”나 “특급작전”에는 남녀 더블 MC가 호흡을 맞춰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 남녀 MC가 상황극을 연출하거나 전화로 청취자들과 담소를 나눌 때 충청도 방언을 넣어 “그랬슈, 그러쥬..” 충청도 방언을 사용한다. 낯설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충청도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러기도 하다. MC가 일부러 충청도 방언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길 바란다(송인덕).</p>	<p>그동안 충청도 사투리는 희화화된 인물에 대한 상징처럼 사용되었기에 방송에서의 사용에서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각 지역 사투리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희화화된 역할에서의 사용보다 진솔하고 삶의 모습을 담은 건전한 역할에 사투리를 배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투리는 표준어로 시정되어야할 대상만으로 삼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상황에 어울리고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의 상징으로 충청도 방언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대전MBC에서 창사 50주년 특별대토론으로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위상을</p>	<p>시사토론 프로그램과 뉴스아이템이 상호 연계되고 지속성을 갖도록 해서 대</p>	<p>○</p>	

	<p>짚어주었다. 행정중심부에서 경제중심부로 중요성 지적은 적절하였다고 본다. 이제 토론에서 보여준 것을 특집 프로그램과 뉴스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제작해 주길 바란다. BBC가 주요 의제를 계속 제작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 각인 시켜주었듯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그 의미를 확충시현 해주길 바란다(오덕성).</p>	<p>전mbc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설정돼 지역여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p>			
<p>교양</p>	<p>서울 KBS에서 제작한 “역사의 현장”을 온 식구가 관심 있게 본다. 출연 패널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다. 이를 우리지역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백제문화 관련하여 충분하게 다루어 볼 수 있다. 역사 토론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와 같이 제작비가 많이 들거나 제작소요기간이 길거나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충청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균형 있게 잘 다루면 관참은 프로그램이 와 달 수 있지 않을까?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을 추천해 본다(오덕성).</p>	<p>백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대전-세종-충남을 아우르는 대전문화방송에서는 계속 안고 가야할 숙제와 같다. 2015년에는 역사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편성 제작할 예정이다.</p>		<p>○</p>	
<p>보도</p>	<p>학부모, 학생들이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관련하여 당근과 채찍을 휘둘러 유난히 그 폐해가 심한 곳이 대전 충남 지역이다. 유독 대전 충남의 대학 구조조정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10%가 넘어섰다. 지역대학의 블랙홀이다. 순수학문을 전공하는 물리학과, 수학과 기타 인문학과 등이 계속 쇠퇴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보면서 과연 어떤 방향의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다루어지길 바란다(오덕성).</p>	<p>시청자 소구력이 큰 분야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담당 기사를 확충했다.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우리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다.</p>		<p>○</p>	